

지역 매아리

기업과 상생 통한 인구유입 모색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내달 9일 정읍시예술회관 공연

2017년 우수작 초청공연 일환으로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가 정읍시예술회관에서 12월 9일 오후 2시와 5시 2회 공연한다.

공연에서는 연연계 대표작인 클래식 마니악로 알려진 개그맨 김현철이 지휘 퍼포머(performer)로 변신해 실력과 연주 자질을 갖춘 오케스트라와 함께 대중에게 비교적 익숙한 클래식 곡들을 들려 줄 예정이다.

김씨는 SBS 라디오 '이숙영의 러브 FM'에서 매주 월요일 김현철의 어설픈 클래식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유쾌하고 신나는 지휘 퍼포먼스와 개그맨 특유의 유머코드가 더해진 쉽고 재미있는 해설로 다소 어렵게 느껴지던 클래식을 관객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료는 전 좌석 5000원이다. 단, 장애인에게는 50%, 청소년에게는 30% 할인된다.

입장권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티켓링크(1588-7890/ www.ticketlink.co.kr)에서 예매하면 된다.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는 2014년 9월 김씨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창단한 오케스트라다.

지휘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는 그동안 사투이마추어오케스트라 단장, 은평국제청소년·홀트학교 오케스트라 명예지휘자 자리를 꿰차 활동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서, 청소년유해업소 점검

부안경찰서는 수능시험 전후 우려되는 청소년 일탈에 선제적 대응하려고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부안을 터미널 사거리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안서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방문하여 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연령 기준 및 신분증 확인 의무,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유형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해 안내·홍보와 학교 상담담당교사는 학교 인성 교사에게 학생지도 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금지 및 신분증 부정행사 등 형사처벌 대상임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등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아동민서장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수능날짜가 변경되면서 수험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청소년이 안전하고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이길수 고창부군수, 기업체 방문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협조 구해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뛰는 고창, 고창사랑 인구늘리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고창군은 16일 이길수 고창군부군수와 민생경제과장 등이 지역 내 우량 기업인 매일유업 상하공장과 현대종합금속에 방문해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에 협조를 구했다.

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기업체에서도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비롯해 기업 운영현황에서 각종 규제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구증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이해를 같이했다.

기업에서는 역량이 뛰어난 인력을

공급 받고 군에서는 군정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 인구의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고창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상생을 위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후에도 고창소방서와 새마을운동본부 고창군지회 등 유관기관사 회단체를 방문해 고창군 인구정책에 대한 소통과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의 지속적 홍보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길수 부군수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으려면 고창군 구성원 모두가 절실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협조를 지속적으로 구하고 군민 모두가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깨닫고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적정인구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노력으로 젊은 기업체 임직원들의 고창군 전입유도 방편으로 주거비용 완화를 위해 LH와 협약을 통해서 현재 고수와 무장에 임대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추가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귀농인 영농정착금지원, 출산장려금지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4차 700만원, 5차 이상부터 1천만원), 난임진단비 지원 등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6세~9세 아동에 대한 양육비 추가 지원도 실무 부서에서 검토 중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동학유적지 탐방·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고창군, 동학농민군의 활동·기념사업 방향 모색



16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기념사업의 방향'을 주제로 제14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창군과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이 16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기념사업의 방향'을 주제로 '제14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창지역은 1855년 12월 3일 동학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인 농무장군 전봉준이 출생한 곳이며 동학의 대접주 순화중 포의 활동무대로 많은 농민군 지도자를 배출했으며, 1894년 3월 20일(음력) 무장에서 선포한 포고문에는 동학농민군이 기포한 이유와 목적, 투쟁대상과 목표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향후 동학농민혁명이 나 주요 지도자를 비롯한 동학농민군에 대한 기념사업을 문화와 연계해 보다 의미 있게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동학농민혁명과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날 이이화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동학농민혁명과 고창

지역 지도자들'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제 주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순회중의 지역적 기반과 그 활용은 정성미(원광대)의 발표와 원현중(연세대)의 토론, 제2주제 '고창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는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발표와 조재곤(서강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3주제 전봉준 장군의 비서 정백현의 '서울일기' 검토는 배항섭(성균관대)의 발표와 송양삼(고려대)의 토론, 제4주제 '고창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과 문화산업 연계'를 위한 콘텐츠 연구'는 홍성덕(전주대)의 발표와 김양식(충북학연구소)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동학유적지 문화탐방은 홍성근 홍주성 전부지, 예산군 관작지 전부지 및 유해비 등을 탐방하고, 진윤식 부이사장의 동학관련 특별강의를 후 제14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인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교육과 유적지 현장탐방, 학술대회 등 직접 참가하여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따뜻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정읍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조기 완료

정읍시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완료했다.

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집 고쳐주기 사업'이 20여일 앞당겨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복권기금)를 지원받아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제때 개·보수하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올해 국비와 시비 모두 3억 6400만원을 투입, 계획 물량인 91세대보다 27세대가 많은 118세대를 대상으로 지붕 개량과 함께 도배와 장판 심크대를 교체했고 창호 보수 등을 마쳤다.

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국가 유공자(의료급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불우 소의 계층 안전점검과 보수 사업'도 각각 19세대(당초 15세대), 426여 세대(당초 400세대)에 대한 사업을 마쳤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유공자와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내년도 유기질 비료 신청 접수

부안군이 친 환경농업을 육성하려고 2018년도 유기질 비료 신청을 오는 12월 8일까지 접수한다.

이를 위해 군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해야 한다.

농지가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는 농지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청하고 같은 지자체의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농지소재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유기질 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 복합비료)과

부산물 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더욱이 군은 정부에서 유기질 비료(3종)는 20kg 1포당 1300원, 부산물 비료(2종)는 등급별 300~1100원씩 지원하며 부안군 자체 재원으로 비종과 상감유기 20kg 1포당 600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은 친 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 오는 12월 중 농가별로 공급량을 확정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농가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의회, 정례회 개최... 내달 14일까지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15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4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5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0건 등 32건에 대한 의안심사에 이어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할 2018년도 시책보고가 있으며 11월 24일 군정질문과 12월 1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12월 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오는 12월

14일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한편, 최인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인 만큼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비롯한 2018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조민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한빛원전의 주변지역 지원배출의 형평성 있는 배분 및 개발행위의 과도한 규제로 고창군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완화해 주기를 요구하는 5분 발언이 있었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로운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750ml 1ea/12%

GIFT SET 4: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375ml 5ea/13%

GIFT SET 6: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일반: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